

세대 간 경제력의 대물림 :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금수저 프리미엄(Golden-spoon Premium) 효과 추정

오태희*, 이장연**

부모의 재력은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9~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가구와 자녀 세대를 연결한 표본을 구축한 후 보유자산 규모 및 형태로 측정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재력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금수저 프리미엄(Golden-spoon Premium)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구직자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하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 금수저 프리미엄, 청년층 노동시장, 신용계약 완화

1. 들어가는 글

부모의 재력은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2018년 취업플랫폼 업체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남녀 1,33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0.3%가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 및 재력’에 대한 응답 비중(37.1%)이 여타 요소들(개인 역량 18.1%, 인맥 11.5%, 성실성 10.4%, 학벌 8.3% 등)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력은 물론 취업에도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조가 청년층 사이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부모의 자산 계층이 청년 세대 내 취업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불일치 및 실업률 증가, 청년층 내 임금 격차 확대, 노동시장의

*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thoh@bok.or.kr)

** 인천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경제학과 조교수(jylee22@inu.ac.kr)

이중구조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상당한 격차를 경험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자산 규모가 자녀의 미래소득을 결정짓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¹⁾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1999~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가구와 자녀 세대를 연결한 표본을 구축한 후 보유자산 규모 및 형태로 측정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산은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과거 소득 활동의 결과 혹은 기존의 세대로부터 이전을 통해 보유하게 된 누적된 부를 나타내며 이는 인적자본의 형성 및 후생을 높이는데 필요한 미래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Sherraden,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지와 관련한 많은 연구는 부모의 소득을 부모가 가진 경제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다양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ahl & Lochner, 2012). 그런데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의 소득이 아닌 자산이 자녀의 교육 및 임금수준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동일 기관에서 동일 수준의 능력(학위 및 전공)을 보유한 경우라도 부모의 자산에 따라 자녀의 소득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Belfield et al., 2018). 또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소득보다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존재한다(Karagiannaki, 2017).²⁾

한편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로들로 (i)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 (ii) 자녀의 구직 및 창업과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도움, (iii) 자녀에게 직접적인 자산 이전이 주로 언급된다. 이러한 부모가 보유한 자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의 상당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들을 합산한 순자산(혹은 총자산)이라는 단일변수를 사용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부 연구들만이 서로 다른 자산 중 특정 자산의 보유가 다른 형태의 자산보다 자녀의 성과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Conley, 2001; Shanks, 2007; Zhan 2006; Zhan & Sheraraden, 2003, Huang et al., 2010). 즉, 대다수의 관련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정은 부모의 자산보유 형태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

1) 이는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실증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 확보 어려움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가구와 그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업 또는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모두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며 상당기간의 소득흐름의 결과가 자산의 형태로 축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두 요인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경로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자녀에게 서로다른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Conley, 2011; Keister & Lee, 2014; Pfeffer, 2018; Spilerman, 2000; Wiborg, 2017). 첫 번째로, 자산은 소득보다 개인의 생애주기 및 세대간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두 번째로, 소득은 실업, 경기변동, 승진 등 노동시장에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자산은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소득 보다 가족의 규범 및 생활습관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즉, 높은 부를 가진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자신의 현재 사회경제적 위치를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체화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자녀의 경제적 성과와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증분식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로 자산은 그 특성에 따라 다시 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로 세분화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두 번째로 일시적인 자산가치의 변화 및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점의 자산보유액이 아닌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다기간에 걸쳐 관측된 자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선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 수준이 아닌 자산별 보유액에 따라 그룹화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가 졸업 직후 취업 여부(자영업 포함)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수저 효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교육수준, 성별 등 인구·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와 그 규모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금융자산보유 규모는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반면 부동산 자산과 부채보유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자산보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선형성이 존재하며 이는 유동성 제약이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 이전(혹은 세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산보유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 혹은 차입제약의 완화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 수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자산의 추가적인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층 구직자의 신용제약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동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의 질을 따지지 않는 양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주로 위치하는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내 이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추출된 표본 구성 및 주요 변수들을 설명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후, 맺음말에서 연구 결과의 함의 등을 정리하였다.

II. 실증분석 모형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청년들의 경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 흐름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자녀는 초기 직장탐색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력, 특히 보유자산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존재한다.

한편 일반적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개인은 소비, 근로 및 저축 선택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미래소득을 이용한 소비 평활화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자산 보유액이 소비에 필요로 하는 규모를 상회하더라도 자산의 형태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거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상당한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보다 금융자산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자산은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어렵지만,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동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collateral channels)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부동산 보유 규모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부모의 자산 규모 및 형태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1. 금수저 프리미엄 효과 추정

부모의 경제력은 현재의 소득 흐름 및 과거 소득 활동의 결과 형성된 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자산과 비교할 때 소득은 실업, 성과급,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단기에 변동성이 자산보다 크며 상당한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이 아닌 보유 총자산액(혹은 순자산액, W_{it})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식 (1)과 같은 축약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³⁾

$$Y_{it} = \beta_0 + \beta_1 W_{it} + X_{it}\gamma + Z_i\xi + \tau_t + \tau_c + \epsilon_{it}. \quad (1)$$

그런데 식 (1)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관

3)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또한, 소득은 자산에 비해 실업,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이 높아 복수의 기간에 걸친 평균값을 사용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Conley, 1990). 따라서 소득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여력을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이 더 나은 대리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측 가능한 자산변수가 부모의 경제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시소득이 아닌 항상소득의 변화인데 현실에서 관측되는 자산보유액은 다양한 일시적 충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 충격을 분리해야 하지만 자산가치 변화중 항상소득의 변화만을 엄밀하게 식별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자산 규모는 많은 경우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자산에 대한 계수가 희석편의(attenuation bias)로 인해 과소추정될 수 있다(Brenner, 2010; Charles & Hurst, 2003; Solon, 1992).

둘째,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미래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별로 유동성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부모의 총자산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 자녀가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적합도가 높은 일자리와 매칭되도록 돕는 데 있어 더 중요할 수 있다(Becker & Tomes, 1979; Loury 1981).⁴⁾ 한편,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담보 경로(collateral channels)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부모의 부동산자산 보유 정도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금융자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산별로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혹은 순자산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부모의 자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을 과소추정하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다(Karagiannaki, 2017).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던 가구가 정부 지원으로 500만원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상당한 금액의 금융자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500만원의 추가적인 자산증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⁵⁾ 이 경우 선형모형을 사용한다면 계수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본고는 식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우선 자산은 그 특성에 따라 다시 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로 세분화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자산가치의 변화 및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점의 자산보유액이 아닌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다기간에 걸쳐 관측된 자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선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 수준이 아닌 자산별 보유액에 따라 그룹화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Karagiannaki (2017) 및 Charles & Hurst (200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식 (2)를 실제 실증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4)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아 미래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진입 초기 단계의 자녀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인적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합도가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인적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나은 일자리와 매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Becker & Tomes, 1979; Loury 1981).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자산이 부동산 및 여타 자산보다 중요할 수 있다(Karagiannaki, 2017).

5) 즉,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자산 규모의 변화가 개인의 선택에 상당한 역할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선택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Y_{it} = \beta_0 + \sum_{j=1}^J \beta_j^F D_{ji}^F + \sum_{j=1}^J \beta_j^H D_{ji}^H + \sum_{j=1}^J \beta_j^D D_{ji}^D + X_{it} \gamma + Z_i \xi + \tau_t + \tau_c + \epsilon_{it}, \quad (2)$$

$$\text{where } D_{ji}^k = \begin{cases} = 1 & \text{if } \underline{W}^k \leq \overline{W}_i^k < \overline{W}^k, \\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overline{W}_i^k = \frac{1}{T_i} \sum_{t=1}^{T_i} W_{it}^k, \quad k \in \{F, H, D\}, \quad j \in \{1, 2, 3\},$$

종속변수(Y_{it})는 분석 목적에 따라 졸업 직후(잠재적 노동시장 진입 시점) 근로 여부, 첫 일자리의 질, 첫 일자리 및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수준을 나타낸다.⁶⁾ 식 (2)는 식 (1)과 비교하였을 때 주요 설명변수로 특정 시점에 관측된 부모의 총자산 보유액(W_{it})이 아닌 자산보유 형태에 따라 금융자산(W_{it}^F), 부동산자산(W_{it}^H) 및 부채(W_{it}^D)로 구분하여 각각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특정 시점의 자산보유액이 아닌 평균 금융자산(\overline{W}_i^F), 부동산자산(\overline{W}_i^H) 및 부채(\overline{W}_i^D)변수를 사용하여 측정오차와 회석편의 문제를 완화하였으며, 자산보유 금액이 아닌 자산 분위 더미변수(D_{ji}^F , D_{ji}^H 및 D_{ji}^D)를 사용하여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서 \overline{W}_i^k 는 개인 i 가 T_i 기간 동안 보유한 k -타입 자산 규모의 기간중 평균값을 나타내며 D_{ji}^k 는 개인 i 가 보유한 자산 k 의 평균 보유액(\overline{W}_i^k)이 \underline{W}^k 보다 크거나 같고 \overline{W}^k 보다는 작아 j 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본고는 자산보유 규모에 따라 1분위(하위 25%)부터 4분위(상위 25%)까지로 구분하는 4개의 그룹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계수 β_j^k 는 여타 조건이 동일할 때 부모의 자산 k 평균 보유액이 4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대비 j 분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종속변수 수준에 기대되는 차이를 나타낸다.⁷⁾ X_{it} 는 시간가변적인 인구·사회적 통제변수들으로써 종속변수가 관측된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현재 일자리의 특성(자영업자인지 여부, 임금근로자인 경우 동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인지 및 비정규직 일자리인지 여부), 거주지역 더미(서울, 경기도, 광역도시 및 여타 지역)를 포함한다. Z_i 는 시간불변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로 성별, 교육수준, 성별-교육수준간 교호항 및 대학수학능력 고사(학력고사 혹은 수능)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⁸⁾ 마지막으로 τ_t 및 τ_c 는 각각 연간 더미 및 코호트 더미이다.

6) 잠재적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대한 정의는 III.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7) 자산은 부모가 하위 25% 미만에 해당하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1분위로,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경우 4분위에 해당하도록 설정하였다.

8) 본고는 응답자의 최종 교육수준을 포착하기 위해 교육연수가 아닌 교육수준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교육연수 또한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부모)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4년제 졸업 및 석사 이상인지 여부(고졸미만, 고졸 및 2년제 이상 대학 졸업)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2. 강건성 검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기본모형은 부모가 보유한 자산의 형태별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을 순자산변수를 사용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산보유액을 그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단일변수인 순자산만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본모형의 추정계수와 비교함으로써 분석결과가 가지는 경제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의 차이에 대해 점검하였다.

둘째, 기본모형은 자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능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 회귀식을 통해 계수를 추정할 경우 발생하는 편의(bias) 문제를 고려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는지 여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동 변수가 개인 능력의 일부만을 반영한다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⁹⁾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부모와 자녀의 능력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대신 부모의 최종학력 변수를 통제한 후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본모형과 비교하였다.

셋째, 자녀의 교육수준 변수를 회귀모형에서 제거하고 계수를 추정하여 기본모형과 비교하였다. 이는 교육변수를 통제하는지에 따라 자산 관련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교육 선택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높은 능력을 보유한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큰 도움 없이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교육만으로 현재와 유사한 교육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자녀의 교육수준 변수의 생략이 자산변수의 계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¹⁰⁾

마지막으로 부모의 가구소득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을 경우, 금융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자산보유 분위 더미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 및 선형확률모형이 아닌 비선형모형(probit 모형)을 사용했을 경우 추정계수의 변화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점검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변수의 사용 여부 및 추정방법 변경에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점검하였다.

9) 즉, 개인의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대리변수가 실제 통제하고자 하는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차항과 대리변수간 상관관계(endogeneity)로 인해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10) 즉,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변화하는 정도를 통해 자산과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III. 실증자료

1. 표본 선정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노동시장 초기 성과간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인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 간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자산가치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고 노동시장의 성과를 적절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관측치 및 기간에 대한 샘플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본고는 동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LIPS는 비농촌지역이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동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1회씩 자산,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교육, 훈련 등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이다. KLIPS는 크게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구자료와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개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KLIPS가 가지는 중요한 장점중 하나는 표본으로 추출된 원가구에서 결혼이나 분가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계속 포함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KLIPS 2~24차년도(1999~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가구와 자녀세대를 연결한 샘플을 구축하고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¹¹⁾ 먼저 KLIPS의 개인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수준,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근로여부, 일자리의 특성(임금, 근로시간,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및 위치,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여부 등),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가구자료로부터는 자산(부동산 및 금융자산), 부채 및 가구소득(근로, 금융, 사회보장, 이전 및 기타 소득)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후 가구고유번호(HHID)를 통해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가구와 개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샘플을 구축하였다.¹²⁾

표본 설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자녀의 관측치를 중심으로 HHID를 통해 부모와의 연결이 가능한 관측치만을 남김으로써 7,305명의 77,528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자료(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자녀의 노동시장 최초진입 및 근무경력의 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관측치를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노동시장 진입 이후 대학 진학, 군 복무 등으로 추가적인 근로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졸 이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은 상당한 이질성을 나타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업을 완전하게 마친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 진입 시점에서

11) 최초 조사(1차년도, 1998년)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일부 변수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최초 조사시점부터 집계된 가구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의 교육수준 등의 일부 시간불변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12) 가구는 부모와 다수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어 본고에서 사용한 샘플중 서로다른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동일한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의 일자리의 질 및 진입 후 최초 수년간의 임금 변화에 대해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관측치 중 자녀의 나이가 20세 미만 혹은 35세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잠재적 근무경력 축적을 시작하기 이전 시점의 관측치를 제거하였으며 이후 실제 취업한 개인들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¹³⁾¹⁴⁾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경력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임금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첫 직장을 가진 시점 이후 최대 5년까지의 관측치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최종 표본으로 1,753명(남성 860명, 여성 893명)의 8,569개(남성 4,190, 여성 4,379) 관측치로 구성된 자녀와 부모가 연계된 불균형 패널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2. 주요 변수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고용, 일자리의 질, 임금수준 및 임금 상승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가구로 부터의 자산가액(부채,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가구소득(근로, 금융, 부동산, 사회보험 및 이전소득), 근로여부 변수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고용, 일자리의 질 및 근로소득)로 부터거주지,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의 교육수준 변수를 사용하였다.¹⁵⁾ 이에 대한 주요 기초통계는 <표 2>에 요약되어 있으며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근로소득: 부모 및 자녀의 근로소득은 응답자가 월평균 세후 임금(임금근로자) 혹은 월평균 순수입(자영업자)을 보고한 경우 추가조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연간 세후 근로소득을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월 급여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¹⁶⁾

자산 및 부채: 본 연구는 부모가구의 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및 총부채의 영향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금융자산은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사적으로 빌려준 금액 및 여타 금융자산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부동산자산액은 현재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는 거주중인 주택자산의 시가액을,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액에 비거주중인 부동산의 시가총액 합산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부채 총액은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및 사적으로 빌린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¹⁷⁾

13) 잠재적 근무경력은 IV.2절에 정의되어 있다.

14) 분석대상 기간중 취업경험이 없는 근로자중 일부는 본인이 근로의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본 개인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개인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경우 취업경험이 있는 근로자와는 상당한 이질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5) 자산가액, 부채 및 소득 변수와 같은 명목변수들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다.

16) 일부의 극단적인 소득 관측치가 추정결과 전체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상·하위 1.0%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 일부의 극단적인 자산 및 부채 관측치가 추정결과 전체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상·하위 1.0%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잠재적 근무경력: 본고는 연구기간중 응답한 학력수준중 가장 높은 학력을 최종학력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현재 교육수준과 최종학력이 처음으로 같아지는 때를 잠재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i.e. 잠재적 근무경력)으로 간주하였다.

첫 일자리의 질: 본고는 자녀의 일자리가 다음과 같은 ① 졸업후 취직까지의 기간 및 ② 일자리의 특성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졸업후 첫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국내 노동시장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일정기간의 직장탐색 및 실업 기간을 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Emmenegger et al. 2012; 이왕원, & 김문조. 2015).¹⁸⁾ 이러한 실증적 규칙성(empirical regularity)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분석 기간중 최종 학력과 현재의 학력이 같아지는 조사시점부터 2년 이내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자로 종사하는 경우 동 근로자가 학업을 마친후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⁹⁾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볼 때 대기업-정규직으로 대변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zation)로 분절돼있는 가운데 최근 1-2차 노동시장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전체 종업원 수가 300인을 상회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간주하였다.

건강상태: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만성적인 질환의 보유 여부 등은 소득 및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상당한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Currie & Madrian, 1999; Luft, 1975; Poterba et al., 2017).²⁰⁾ 이러한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self-evaluated health condition, SEH)를 '나쁨'이라고 응답하거나 혹은 육체활동의 제약요인이 '존재'한다는 응답한 경우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간주하고 이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²¹⁾

대학진학 시험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최종학력 수준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진학률이 2021년에 73.7%에 달하며 학교별로 졸업생들의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무원 취업 비율, 평균 초기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18) 경제활동인구조사(21.5월)에 따르면 졸업후 첫 취직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0개월이며 전체 취업자중 26.7%가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개월 미만 47.4% / 3~6개월 14.1% / 6~12개월 11.9% / 1~2년: 11.7% / 2~3년 6.8% / 3년 이상 8.2%).

19) 예를 들어 개인 A의 최종 학력이 4년제 대졸이며 2006년에 현재의 학력이 대졸이 되었으며 2008년중 입사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동 근로자가 졸업후 취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0) 또한,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 KLIPS는 "현재 건강상태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의 척도로 개인이 평가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있다(1. 아주 건강하다 / 2. 건강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5. 건강이 아주 안좋다). 본 연구에서는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혹은 '5. 건강이 아주 안좋다'를 선택한 경우 동 개인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교육수준 및 인구·사회적 변수만으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태도, 가치관, 향후 잠재력을 등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KLIPS에서 제공하는 대학진학 시험(학력고사 혹은 대학수학능력 시험)결과를 범주형으로 나타낸 변수를 사용하여 최상위권(학력고사: 301점 이상 / 수능(200점 만점): 171점 이상 / 수능(400점 만점) 341점 이상) 및 차상위권(학력고사: 281~300점 / 수능(200점):161~170점 / 수능(400점 만점): 321~340점) 변수를 생성하여 통제하였다.²²⁾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절에서는 부모의 자산을 평균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액으로 구분하고 자산별로 자녀의 고용의 질, 임금수준 및 임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는 여타 형태의 자산보다 금융자산과 보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 자산 및 부채보유: <표 3>과 <표 4>는 부모의 자산형태별 보유 분위간 결합분포이며 이를 통해 가구의 자산 및 부채보유는 한 형태의 부를 대규모로 보유한 가구이더라도 항상 다른 형태의 부를 다량으로 보유지 않음을 알 수 있다.²³⁾ 먼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간 상관관계를 보면 (표 3) 일반적으로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보유 규모도 크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상위 및 최하위 분위에 속하는 가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4분위에 속하는 부동산 보유 가구중 동일한 분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51.5%인 반면 1분위의 금융자산 보유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최하위 분위의 부동산자산 보유 가구중 44.1%가 금융자산 역시 최하위 분위에 속하며 3분위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25%(3분위 17.4% / 4분위 6.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분위 및 3분위의 부동산자산을 보유한 부모중 30%를 넘는 가구들이 동일한 분위의 금융자산 보유그룹에 속하며 자신의 부동산 분위보다 한 분위 높은 금융자산 보유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모두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채보유와 자산보유 형태에 따른 분위별 결합분포를 살펴보면(표 4) 부채는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4분위에 속하는 부동산 보유자중 60%를 소폭 하회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부채 분위에 속하며 여타 부동산 분위에 속한 가구들 또한 30% 이상이 동일 분위의 부채보유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부동산자산이 가장

22) 대학진학 시험 결과를 응답하지 않은 관측치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본고는 '대학진학 시험 결과 응답불응'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이와 같은 특정 자산보유에 있어 동일한 그룹에 속한 가구간에 존재하는 여타자산보유에 있어서의 이질성은 서로 다른 자산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차이 식별을 가능하도록 한다.

적은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부채수준도 낮아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부동산 보유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와 금융자산 간에는 부동산자산처럼 일관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례로 1분위의 부채보유 가구가 1분위의 금융자산보유 가구에 해당할 확률은 16.4%인 반면, 동 가구가 최상위 금융자산보유 분위에 속할 확률은 33.0%로 두배를 상회한다. 또한, 부채수준이 4분위에 속한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4분위에 속할 확률이 여타 분위에 속할 확률보다 높지만, 이는 부동산자산의 경우와 비교할 때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부모의 자산보유-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표 5>는 부모의 자산보유 분위별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 종사상지위, 정규직 및 대기업 종사 여부를 보여준다. 확인결과 노동시장에서 자녀의 성과는 부동산 및 부채보다는 금융자산보유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근로소득과 부모의 부채보유 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높은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보유 분위 가구의 자녀일수록 근로소득이 더 높으며 이와 같은 정(+)의 상관성은 금융자산이 부동산자산보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정규직 및 대기업 종사자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관측된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의 자산보유 형태와 고등교육을 마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 관계가 있으며 자산보유 형태별로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은 부모의 자산형태에 따른 보유 분위와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 소득수준간의 이행행렬을 나타낸다. 표의 각 행은 해당 자산분위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첫 직장에서 받는 소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만약 부모의 해당 자산보유와 자녀의 근로소득과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각 소득분위에 속할 조건부 확률은 25%이며 반대로 완전한 상관성이 있다면 주 대각행렬이 모두 100%의 값을 가진다.²⁴⁾ 분석결과 부모의 부동산자산보다는 금융자산과 자녀의 근로소득간 상관관계가 더 높은 반면, 부채와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4분위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녀의 근로소득이 동일 분위에 머무르는 경우는 47.7%로 매우 높지만, 부동산자산 및 부채의 경우 동 비율이 30% 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의 자산 규모가 1분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4분위에서와 유사하게 여타 자산보다 금융자산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으며 부채의 경우 상관관계가 2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2~3분위에 해당할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이 동일 분위에 속할 확률이 모두 30%를 상회하는 반면, 2~3분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자산 및 부채의 경우는 25% 내외 수준으로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보유자산의 형태별 자녀의 근로소득과 연계성의 차이는 <표 6>의 이행행렬을 이용해 도출한 이동성 지표(Shorrocks's Index 및 Bartholomew's Index, <표 7>)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어 부모의 자산중 금융자산이 부동산자산 및 부채보다 자녀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⁵⁾

24) 즉, 부모의 해당 자산보유 정도에 따라 자녀의 근로소득 수준이 완전하게 결정된다.

25) 두 이동성 지표는 각각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Bartholomew, 1982; Shorrocks, 1978).

$$\text{Shorrocks's Index} = \frac{K - \text{tr}(P_{ij})}{K-1}, \quad \text{Bartholomew's Index} = \frac{1}{K} \sum_{i=1}^K \sum_{j=1}^K (P_{ij} \times |i-j|),$$

2. 금수저 프리미엄 효과

본 절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간에 여전히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8>-<표 11>은 각각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자녀가 졸업 직후 근로중인지 여부, 첫 일자리의 질, 첫 임금수준 및 임금증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표(<표 11> 제외)의 열 1은 공통적으로 식 (2)를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이를 기본모형(baseline)이라고 부를 것이다. 기본모형에 대한 추정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수저 효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금융자산과 노동시장에서 자녀의 질적인 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교육수준, 성별 등 인구·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졸업 직후 직장으로의 이행 여부 및 첫 일자리의 질

졸업 직후 근로 여부: <표 8>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졸업 직후 직장으로 이행 여부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추정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졸업 직후 자녀의 취업(자영업 포함)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의 형태와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수저 자녀인지 여부가 졸업 직후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⁶⁾ 다만, 부모가 최상위 분위에 속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1분위에 속한 부모를 둔 자녀가 취업하는 비율은 6.2%가 낮으며 이러한 결과는 10% 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첫 일자리의 질: <표 9>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첫 일자리 질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²⁸⁾²⁹⁾ 추정결과 금융자산 규모가 상위 50% 이내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그

여기서 $K(=4)$ 는 분고에서 사용한 분위수를, P_{ij} 는 부모의 자산분위가 i 로 주어졌을 때 자녀 소득분위가 j 인 경우의 비중을 나타낸다. 부모의 자산분위와 자녀의 소득분위가 무관한 경우 Shorrocks's index는 1의 값을, Bartholomew's index는 1.25의 값을 가지며, 반대로 두 지수 모두 부모의 자산 분위에 따라 자녀의 소득분위가 완전하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나타낸다.

26) 이러한 추정결과는 IV.1 절에서 언급하였던 <표 5>와 부합한다.

27) 선행연구는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관련하여 엇갈리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Algan et al. (2003)은 프랑스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보유는 직업탐색 기간을 늘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현성(2010)은 다양한 인구·사회적 변수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변수, 대학의 질 등의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고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의 첫 직장 이행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8) 본고는 일자리의 질 측정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를 제외하였다. 그런데 임금근로와 자영업 부문간 선택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노동시장 최초진입 과정의 청년층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표본선택 편향(selection bias)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청년 취업자중(무급종사자 제외) 4.0%만이 자영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에 첫 직장경력을 시작하는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최상위 분위에 속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1분위 및 2분위에 속한 부모를 둔 자녀가 양질의 첫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각각 14.9%p, 13.3%p 감소하며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부모의 부동산자산과 부채보유 규모가 각각 4분위에 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타 분위에 해당하더라도 자녀가 양질의 첫 직장에서 근무할 확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직장탐색 과정에서 직면하는 유동성 제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aliendo et al., 2013; Filges et al. 2015; Gerards & Welters, 2020; Van der Klaauw & Van Ours, 2013). 자녀는 학업을 마치고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최대한 업무 적합도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근무하기를 원할 것인데 보유한 인적자본이 동일한 경우 추구하는 일자리의 질이 높을수록 동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감소하므로 구직과정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득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추가적인 직장탐색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동성 제약의 완화 측면에서 금융자산이 여타 자산보다 자녀 첫 일자리의 질과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반면, 부동산자산 및 부채가 첫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교육수준 등 여타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경로 및 부모의 부채로 인한 추가적인 제약이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 및 근로경력에 따른 임금 변화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수준: <표 10>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의 첫 소득수준 (첫 일자리-첫 소득)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추정결과 고용의 질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금융자산이 자녀의 첫 일자리-첫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부동산자산 및 부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산 보유와 관련해서 여타

업자로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급수준은 212.5만원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월급(212.3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추정결과에 표본선택 편향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 29) 본고는 일자리의 질을 정의하기 위해서 전체 종업원 수가 300인을 상회하는 동시에 정규직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였는데 일부 관측치에서 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종업원수를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치 수가 감소하였음을 밝힌다.
- 30) 본고는 추가적으로 현재 근로자가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수준 혹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준과 비교해 '수준이 낮은 편이다' 혹은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 등 근로자가 하향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분위별로 첫 직장에서 하향취업한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상위 50%이내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를 둔 자녀의 16.2%가 하향취업(3분위 15.9% / 4분위: 16.5%)한 반면, 1분위 및 2분위에 속한 자녀는 각각 23.8%, 17.2%가 하향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산과 업무 적합도 간에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상위의 분위에 속하는 부모를 둔 자녀의 첫 직장의 첫 소득수준 대비 1분위에 속한 자녀의 소득수준은 10.0% 낮으며, 하위 25~50%일 경우 7.4% 낮았으며 관련 회귀계수 추정치들은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위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는 4분위 부모의 자녀에 비해 소득수준이 1.9% 낮았지만, 관련 회귀계수 추정치는 10%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성 제약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이며, 3분위 이상에 속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의 자녀는 유동성 제약이 이들의 근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모의 부동산자산과 부채보유 규모의 경우에는 각 자산의 보유액과 자녀의 첫 직장 소득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경력에 따른 임금 변화: <표 11>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시간의 흐름(i.e. 잠재적 근무경력)에 따른 임금과 부모의 경제력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정결과 첫 일자리에 서의 소득수준 및 여타 조건들을 통제하더라도 부모의 금융자산보유 규모가 4분위에 속한 자녀 대비 1분위에 속한 자녀는 여전히 소득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자녀의 노동시장 최초 진입 이후 경력개발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분위 금융자산보유 그룹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는 여타 조건이 같더라도 최상위 분위 부모의 자녀대비 직장경력이 1년 차(첫 일자리에 첫 소득을 받은 시점을 0년 차로 간주)일 때 소득수준이 7.2%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벌어져 5년 차에는 동 격차가 10.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 일자리의 질 및 첫 일자리 근로소득에 대한 추정결과와는 다르게 1분위를 제외한 여타 분위에 속한 경우에는 4분위에 속하는 자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동산 및 부채보유 규모 정도가 근로경력에 따른 임금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성 제약에 처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능한 청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와의 매칭을 통해 초기 경력개발 단계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인적자본의 빠른 축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Becker (2009)의 분석과 부합한다. 또한,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 정도가 낮은 분위에 속하는 경우 임금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최초 입직 이후 5년 차에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력개발 초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와 매칭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Baert et al., 2013)

3. 시사점

앞선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수저 부모는 자녀의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 및 임금에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금융자산 보유는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부동산 자산과 부채의 보유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동성 제약이 청년의 구직활동 및 그 결과에 있어 중요한 반면, 부동산이 담보로써 유동성 제약

을 완화하는 통로로의 역할은 제한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형태의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직장탐색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도가 높은 일자리를 찾고 동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동 일자리와 매칭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Becker & Tomes, 1979; Loury 1981). 반면,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상대적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일자리 중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므로 유동성 제약이 없는 상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낮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결과 첫 일자리의 질 뿐만 아니라 첫 임금 및 업무를 통한 경력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상승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자산총액으로 평가한 경제력이 같더라도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에 따라 자녀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¹⁾ 즉, 사회경제적 위치의 세대간 이동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의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자녀가 노동시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자산보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비선형성이 존재하며 이는 유동성 제약이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 이전(혹은 세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유동성 제약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들은 금융자산 또한 많아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이 수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 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전에 있어 주요한 통로로 인식되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더해 부모의 부가 자녀의 양질의 일자리 대한 접근성으로 이어짐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경제력 간 연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특히 이러한 연계성에 있어 부모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²⁾ 그러므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대간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4. 강건성 점검

<표 8> 및 <표 9>의 열 2~7과 <표 10>의 열 2~6에는 II.2절에서 언급한 강건성 검증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각 열에 해당하는 실증분석 모형은 기본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열 2는 자산보유 형태에 따른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분석에서 사용되는 순자산 분위기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열 3은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성과 대신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으며 열 4는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과 및 교

31) 이러한 추정결과는 Karagiannaki (2017) 및 van den Heuvel et al. (2022)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32) 반면, 부동산자산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보다는 자녀의 가치관, 생활규범,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가족적 배경으로 인해서 체화되는 장기적인 요인들과 보다 높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측된다(Conley 2001; Hill & Duncan 1987; Huang et al. 2010).

육수준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열 5는 부모의 가구소득 분위를 모형에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열 6은 부모의 형태별 자산중 금융자산 및 부채관련 변수를 제거하고 부동산 자산보유 분위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킨 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8> 및 <표 9>의 열 7은 선형확률모형이 아닌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도출한 한계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검증결과 일부 변수의 추가, 제외 및 대안 변수 사용을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더라도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미미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맺음말

부모 재력은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23년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모의 가난은 자녀의 가난으로 대물림될 수 있고, 자산 규모가 크고 특히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모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금수저 프리미엄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금수저 프리미엄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제약되고 사회계층이 세습화될 가능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부모의 자산 부족이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부족, 유동성 부족 등을 초래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성과로 이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수저 프리미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청년층 구직자의 신용제약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교적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지위 경쟁이 과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는 노동 이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 대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만큼 추후 부모가 부를 축적하는 데 관여된 여타 관측되거나 혹은 관측되지 않는 다양한 경로 중 어느 경로가 가장 우세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자산 분위에 속한 부모들은 잘 갖춰진 네트워크를 통해 자녀의 직장선택, 경력개발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vernport et al., 2021).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금수저 프리미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이왕원, & 김문조. (2015). 한국 청년층의 취업준비와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0(1), 187-223.
- 이현성. (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1(2), 47-84.
- 황선재, & 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65-88.
- Algan, Y., Chéron, A., Hairault, J. O., & Langot, F. (2003). Wealth effect on labor market transition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6(1), 156-178.
- Baert, S., Cockx, B., & Verhaest, D. (2013). Overeducation at the start of the career: stepping stone or trap?. *Labour Economics*, 25, 123-140.
- Bartholomew, D. (1967). *Stochastic models for social processes*, J. Wiley
- Becker, G. S., & Tomes, N. (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1153-1189.
- Becker, G. S. (2009).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lfield, C., Britton, J., Buscha, F., Dearden, L., Dickson, M., Van Der Erve, L., ... & Zhu, Y. (2018). The relative labour market returns to different degrees.
- Belley, P., & Lochner, L. (2007). The changing role of family income and ability in determining educational achievement. *Journal of Human capital*, 1(1), 37-89.
- Blanden, J., Goodman, A., Gregg, P., & Machin, S. (2001). *Changes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Britain*. University of Bristol, Centre for Market and Public Organisation.
- Brenner, J. (2010). Life-cycle variations in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and lifetime earnings: Evidence for German natives and guest workers. *Labour Economics*, 17(2), 392-406.
- Browning, M., & Lusardi, A. (1996). Household saving: Micro theories and micro fa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4), 1797-1855.
- Caliendo, M., Tatsiramos, K., & Uhlendorff, A. (2013). Benefit duration, unemployment duration and job match quality: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8(4), 604-627.
- Cameron, S. V., & Taber, C. (2004). Estimation of educational borrowing constraints using returns to school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1), 132-182.
- Charles, K. K., & Hurst, E. (2003). The correlation of wealth across gener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6), 1155-1182.

- Chevalier, A., & Lanot, G. (2002). The relative effect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ituation on educational achievement. *Education Economics*, 10(2), 165-181.
- Conley, D. (2010). *Being black, living in the red: Race, wealth, and social policy in America*. Univ of California Press.
- Conley, D. (2001). Capital for college: Parental assets and postsecondary schooling. *Sociology of Education*, 59-72.
- Currie, J., & Madrian, B. C. (1999). Health, health insurance and the labor market.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 3309-3416.
- Dahl, G. B., & Lochner, L. (2012).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Evidence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merican Economic Review*, 102(5), 1927-56.
- Davenport, A., Levell, P., & Sturrock, D. (2021). *Why do wealthy parents have wealthy childre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 Deng, S., Huang, J., Jin, M., & Sherraden, M. (2014). Household assets, school enrollment, and parental aspirations for children's education in rural China: Does gender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3(2), 185-194.
- Duncan, G. J., Ziol Guest, K. M., & Kalil, A. (2010). Early 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 Engelhardt, C., & Wagener, A. (2014).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Available at SSRN 2463129.
- Ermisch, J., & Francesconi, M. (2001). Family matters: Impacts of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al attainments. *Economica*, 68(270), 137-156.
- Emmenegger, P., Häusermann, S., Palier, B., & Seeleib-Kaiser, M. (Eds.). (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UP USA.
- Filges, T., Geerdsen, L. P., Knudsen, A. S. D., & Jørgensen, A. M. K. (2015). Unemployment benefit exhaustion: incentive effects on job-finding rat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5(1), 21-43.
- Gerards, R., & Welters, R. (2020). Liquidity constraints, unemployed job search and labour market outcom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3), 625-646.
- Hill, M. S., & Duncan, G. J. (1987). Parental family income and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children. *Social Science Research*, 16(1), 39-73.
- Huang, J., Guo, B., Kim, Y., & Sherraden, M. (2010). Parental income, assets, borrowing constraints and children's post-secondary educ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4), 585-594.
- Keister, L. A., & Lee, H. Y. (2014). The one percent: Top incomes and wealth in sociological research. *Social Currents*, 1(1), 13-24.

- Krueger, A. B. (2018). Inequality, too much of a good thing. In *The inequality reader* (pp. 25-33). Routledge.
- Loury, G. C. (1981).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843-867.
- Luft, H. S. (1975). The impact of poor health on earning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3-57.
- Pfeffer, F. T. (2018). Growing wealth gaps in education. *Demography*, 55(3), 1033-1068.
- Poterba, J. M., Venti, S. F., & Wise, D. A. (2017). The asset cost of poor health.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9, 172-184.
- Shanks, T. R. W. (2007). The impacts of household wealth o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overty*, 11(2), 93-116.
- Shorrocks, A. F. (1978). The measurement of mobilit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013-1024.
- Spilerman, S. (2000). Wealth and stratification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97-524.
- Solon, G. (1992).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93-408.
- Van der Klaauw, B., & Van Ours, J. C. (2013). Carrot and stick: How re employment bonuses and benefit sanctions affect exit rates from welfare.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8(2), 275-296.
- Wiborg, Ø. N. (2017). Family wealth and school grades in Norway: exploring how immediate and extended family wealth matters for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In *Social Inequality Across the Generations*. Edward Elgar Publishing.
- Zhan, M. (2006). Assets,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8), 961-975.
- Zhan, M., & Sherraden, M. (2003). Assets, expectations, and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in female-headed households. *Social Service Review*, 77(2), 191-211.

<표 1> 표본 선택

분석대상 제외 기준	근로자 수		관측치 수	
▪ 원자료(부모-자녀)	7,305		77,528	
▪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015	(△3,290)	50,396	(△27,132)
▪ 연령: 20세 미만 혹은 35세 초과	3,926	(△89)	31,176	(△19,220)
▪ 노동시장 최초진입 관측 불가	1,753	(△2,173)	11,868	(△19,308)
▪ 업무경력 5년 초과	1,753	(-)	8,569	(△3,299)
- 남 성	893		4,190	
- 여 성	860		4,379	

주: () 내는 각각의 표본 선택조건 부과에 따른 근로자 수 또는 관측치 수의 감소를 의미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통계 요약

	자녀			부모 가구	
	전체	남성	여성		
비율(%)	100.0	49.1	50.9	남성 가구주(%)	92.9%
나이(세)	24.9	26.1	23.7	가구주 연령(세)	55.0
학력비중(%)				평균 부동산자산(만원)	
- 전문대 졸업	36.0	33.8	38.1	- 1분위(하위 25%이내)	3,191
- 4년제 졸업	56.2	56.4	56.0	- 2분위(하위 26~50%)	11,861
- 대학원 이상	7.8	9.8	5.9	- 3분위(상위 26~50%)	22,519
대학진학 시험 결과(%)				- 4분위(상위 25%이내)	57,257
- 최상위권 비중	4.7	5.2	4.1	평균 금융자산(만원)	
- 차상위권 비중	3.1	2.9	3.4	- 1분위	780
건강상태: 나쁨	1.0	0.8	1.1	- 2분위	1,633
거주지역(%)				- 3분위	3,042
- 서울	22.4	20.1	24.6	- 4분위	8,708
- 경기도	19.5	19.2	19.7	평균 총부채(만원)	
- 광역시	34.9	35.9	33.9	- 1분위	412
출생연도별 비중(%)				- 2분위	2,254
- 70~80년생	34.2	39.5	30.1	- 3분위	4,154
- 81~90년생	44.0	42.0	45.9	- 4분위	14,620
- 91~00년생	21.8	18.5	25.0		
근로소득(만원)	183.9	208.2	162.8		
(표준편차)	(77.0)	(81.3)	(66.4)		
대기업(%)	41.9	45.2	38.8		
비정규직(%)	26.5	21.5	31.0		

주: 자녀관련 변수는 현재 학력과 최종학력이 처음으로 동일해지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도출

<표 3> 부모가구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보유 분위별 분포

		금융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부동산 자산	1분위	44.1%	31.5%	17.4%	6.9%
	2분위	20.7%	34.8%	28.0%	16.5%
	3분위	14.3%	22.5%	32.5%	30.6%
	4분위	5.7%	13.8%	29.0%	51.5%

<표 4> 부모가구의 부채총액과 자산보유 형태 분위별 분포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35.0%	32.5%	23.8%	8.7%	16.4%	21.7%	28.9%	33.0%
부 2분위	32.2%	31.7%	25.8%	10.4%	22.0%	30.8%	26.2%	20.9%
채 3분위	16.6%	29.3%	34.1%	20.1%	23.9%	31.7%	23.6%	20.8%
4분위	6.9%	12.2%	22.4%	58.4%	19.1%	17.3%	30.0%	33.6%

<표 5> 부모가구의 자산분위별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자산 분위	근로소득 (만원)	경활인구	노동시장					비경활인구
			임금근로자	(정규직)	(대기업)	자영업	실업자	
금융자산								
1	191.3	72.4%	58.8%	(67.5%)	(35.9%)	2.5%	10.3%	27.6%
2	203.3	76.3%	68.3%	(74.0%)	(40.9%)	0.7%	6.5%	23.7%
3	214.4	70.3%	60.4%	(72.9%)	(38.4%)	1.7%	7.2%	29.7%
4	241.8	74.9%	65.7%	(77.2%)	(49.2%)	1.7%	6.6%	25.1%
부동산자산								
1	194.3	76.4%	66.4%	(70.3%)	(30.7%)	1.0%	8.5%	23.6%
2	209.2	72.8%	64.8%	(70.8%)	(46.1%)	0.7%	7.0%	27.2%
3	218.6	70.4%	60.6%	(76.2%)	(46.6%)	2.4%	6.9%	29.6%
4	232.9	75.0%	62.8%	(76.3%)	(42.2%)	2.3%	7.8%	25.0%
부채								
1	215.1	73.4%	65.0%	(76.3%)	(39.6%)	0.3%	7.4%	26.6%
2	221.0	73.1%	61.7%	(72.9%)	(43.1%)	1.8%	9.0%	26.9%
3	215.5	71.6%	62.4%	(70.1%)	(40.9%)	1.3%	7.2%	28.4%
4	220.5	76.0%	65.3%	(74.6%)	(43.6%)	2.9%	6.2%	24.0%

주: 1) 표의 각 수치들은 자녀의 최종학력과 현재의 학력수준이 동일해지는 시점에서 측정된 노동시장 성과를 사용하여 도출 2)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해당 그룹에 속한 개인들을 전체 관측치수로 나누어 도출 3) ()내 수치는 임금근로자중 상대 비중을 나타냄 4) 전체 샘플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표 6> 부모가구의 자산분위와 자녀의 첫 직장 근로소득 분위간 이행행렬

부모 자산	자녀의 첫 직장 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47.0	26.5	18.7	7.0	39.7	24.8	18.9	16.6	29.7	24.1	22.9	23.2
2분위	27.5	35.7	23.4	13.4	24.8	25.2	29.2	20.8	27.4	23.5	24.8	24.3
3분위	14.3	27.2	32.0	26.5	22.2	26.9	23.7	27.2	24.5	27.8	26.3	21.5
4분위	5.7	16.2	30.4	47.7	14.6	23.5	30.0	31.9	19.1	25.1	28.0	27.8

주: 표시 단위는 %임

<표 7> 부모가구의 자산분위와 자녀의 첫 직장 근로소득 분위 이동성 지표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
Shorrocks's Index ($0 \leq \leq 1$)	0.789	0.932	0.976
Bartholomew's Index ($0 \leq \leq 1.25$)	0.812	1.068	1.185

주: 1) Shorrocks's Index는 부모의 분위와 자녀의 분위가 무관한 경우 1을, 부모의 분위에 따라 자녀의 분위가 완전하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나타냄 2) Bartholomew's Index의 경우 부모의 분위와 자녀의 분위가 무관한 경우 1.25를 완전하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나타냄

<표 8> 졸업 직후 근로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aseline	(1)	(2)	(3)	(4)	(5)	(6)
금융 자산	1분위	-0.062 (0.036)	-	-0.066 (0.036)	-0.057 (0.036)	-0.068 (0.039)	-	-0.064 (0.035)
	2분위	-0.004 (0.031)	-	-0.007 (0.032)	0.004 (0.032)	-0.010 (0.033)	-	-0.003 (0.032)
	3분위	-0.050 (0.030)	-	-0.053 (0.030)	-0.046 (0.030)	-0.053 (0.031)	-	-0.051 (0.029)
	로그	-	-	-	-	-	-	-
		-	-	-	-	-	-	-
부동산 자산	1분위	0.056 (0.040)	-	0.046 (0.041)	0.065 (0.041)	0.050 (0.042)	0.020 (0.032)	0.057 (0.041)
	2분위	0.015 (0.035)	-	0.008 (0.035)	0.022 (0.035)	0.010 (0.036)	-0.011 (0.030)	0.019 (0.035)
	3분위	-0.024 (0.032)	-	-0.029 (0.032)	-0.023 (0.032)	-0.028 (0.033)	-0.046 (0.030)	-0.022 (0.032)
	로그	-	-	-	-	-	-	-
		-	-	-	-	-	-	-
부채	1분위	-0.035 (0.035)	-	-0.031 (0.036)	-0.030 (0.035)	-0.037 (0.036)	-	-0.036 (0.035)
	2분위	-0.037 (0.033)	-	-0.032 (0.033)	-0.029 (0.033)	-0.039 (0.033)	-	-0.039 (0.033)
	3분위	-0.045 (0.031)	-	-0.041 (0.031)	-0.043 (0.031)	-0.047 (0.031)	-	-0.046 (0.031)
	로그	-	-	-	-	-	-	-
		-	-	-	-	-	-	-
순자산	1분위	-	0.033 (0.031)	-	-	-	-	-
	2분위	-	0.001 (0.030)	-	-	-	-	-
	3분위	-	-0.024 (0.030)	-	-	-	-	-
	로그	-	-	-	-	-	-	-
부모 소득	1분위	-	-	-	-	0.017 (0.040)	-	-
	2분위	-	-	-	-	0.022 (0.035)	-	-
	3분위	-	-	-	-	0.014 (0.033)	-	-
	로그	-	-	-	-	-	-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상위	-0.001 (0.055)	-0.001 (0.055)	-	-	-0.001 (0.055)	-0.001 (0.055)	0.003 (0.052)
	차상위	0.001 (0.068)	0.009 (0.068)	-	-	0.001 (0.068)	0.006 (0.068)	-0.009 (0.064)
여성	0.144*** (0.039)	0.146*** (0.039)	0.144*** (0.039)	0.041 (0.025)	0.144*** (0.039)	0.148*** (0.039)	0.148*** (0.039)	0.066 (0.025)
대출	-0.040 (0.037)	-0.036 (0.037)	-0.038 (0.037)	-	-0.039 (0.037)	-0.029 (0.037)	-0.029 (0.037)	-0.095 (0.026)
여성-대출	-0.103* (0.051)	-0.106* (0.051)	-0.105* (0.051)	-	-0.103* (0.051)	-0.110* (0.051)	-	-
석사 이상	0.041 (0.059)	0.047 (0.059)	0.045 (0.058)	-	0.043 (0.059)	0.052 (0.060)	-	-0.123 (0.053)
여성-석사 이상	-0.309*** (0.088)	-0.312*** (0.088)	-0.311*** (0.089)	-	-0.312*** (0.089)	-0.318*** (0.089)	-	-
관측치수		1,753	1,753	1,753	1,753	1,753	1,753	1,753
R-square		0.061	0.056	0.062	0.047	0.061	0.056	0.051

주: 1) ()내는 이분산을 고려한 표준오차 2) 모든 회귀식은 코호트더미, 연령별 더미, 거주지역 더미(서울, 경기도, 광역도시)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3) *는 통계적으로 5%에서, **는 1%에서, ***는 0.1%에서 유의함

<표 9> 첫 일자리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aseline	(1)	(2)	(3)	(4)	(5)	(6)
금융 자산	1분위	-0.149** (0.051)	-	-0.124* (0.052)	-0.154** (0.051)	-0.128* (0.055)	-	-0.148** (0.051)
	2분위	-0.133** (0.046)	-	-0.123** (0.046)	-0.130** (0.046)	-0.120* (0.047)	-	-0.133** (0.044)
	3분위	-0.051 (0.045)	-	-0.041 (0.045)	-0.046 (0.045)	-0.045 (0.045)	-	-0.046 (0.040)
	로그	-	-	-	-	-	-	-
부동산 자산	1분위	-0.080 (0.055)	-	-0.059 (0.056)	-0.086 (0.055)	-0.069 (0.057)	-0.156*** (0.046)	-0.082 (0.054)
	2분위	-0.039 (0.050)	-	-0.027 (0.051)	-0.047 (0.050)	-0.031 (0.051)	-0.0905* (0.045)	-0.042 (0.047)
	3분위	-0.009 (0.048)	-	0.003 (0.048)	-0.015 (0.048)	-0.004 (0.049)	-0.034 (0.046)	-0.010 (0.044)
	로그	-	-	-	-	-	-	-
부채	1분위	-0.005 (0.049)	-	0.010 (0.050)	-0.002 (0.049)	0.005 (0.050)	-	-0.004 (0.048)
	2분위	-0.007 (0.048)	-	-0.009 (0.049)	-0.008 (0.047)	-0.001 (0.048)	-	-0.001 (0.046)
	3분위	0.019 (0.045)	-	0.019 (0.045)	0.015 (0.045)	0.023 (0.045)	-	0.022 (0.042)
	로그	-	-	-	-	-	-	-
순자산	1분위	-	-0.109*** (0.046)	-	-	-	-	-
	2분위	-	-0.099* (0.044)	-	-	-	-	-
	3분위	-	-0.062 (0.045)	-	-	-	-	-
부모 소득	1분위	-	-	-	-	-0.054 (0.057)	-	-
	2분위	-	-	-	-	-0.042 (0.049)	-	-
	3분위	-	-	-	-	-0.024 (0.046)	-	-
대학 수학능력 시험	최상위	0.189* (0.081)	0.196* (0.083)	-	-	0.192* (0.082)	0.196* (0.082)	0.180* (0.070)
	차상위	-0.031 (0.099)	-0.014 (0.103)	-	-	-0.027 (0.098)	-0.020 (0.101)	-0.012 (0.086)
여성	0.148** (0.057)	0.157** (0.057)	0.150** (0.057)	-0.026 (0.036)	0.147* (0.057)	0.144* (0.057)	-0.020 (0.036)	
대졸	0.098 (0.052)	0.110* (0.052)	0.100 (0.052)	-	0.097 (0.052)	0.111* (0.051)	-0.012 (0.037)	
여성-대졸	-0.236*** (0.070)	-0.244*** (0.071)	-0.247*** (0.070)	-	-0.237*** (0.071)	-0.235*** (0.070)	-	
석사 이상	0.227** (0.088)	0.227* (0.090)	0.238** (0.086)	-	0.223* (0.088)	0.235** (0.088)	0.028 (0.075)	
여성-석사 이상	-0.425*** (0.128)	-0.426*** (0.129)	-0.436*** (0.127)	-	-0.417** (0.129)	-0.420*** (0.126)	-	
관측치수		883	883	883	883	883	869	
R-square		0.151	0.140	0.156	0.127	0.152	0.139	0.124

주: 1) ()내는 이분산을 고려한 표준오차 2) 모든 회귀식은 코호트더미, 연령별 더미, 거주지역 더미(서울, 경기도, 광역도시) 및 연도더미를 통제하였음 3) *는 통계적으로 5%에서, **는 1%에서, ***는 0.1%에서 유의함

<표 10> 첫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로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aseline	(1)	(2)	(3)	(4)	(5)
금융자산	1분위	-0.100** (0.033)	-	-0.085* (0.033)	-0.108** (0.033)	-0.075* (0.036)	-
	2분위	-0.074** (0.027)	-	-0.064* (0.027)	-0.079** (0.028)	-0.061* (0.028)	-
	3분위	-0.019 (0.026)	-	-0.005 (0.026)	-0.016 (0.027)	-0.014 (0.026)	-
	로그	-	-	-	-	-	-
부동산 자산	1분위	-0.049 (0.036)	-	-0.029 (0.036)	-0.062 (0.037)	-0.034 (0.037)	-0.092** (0.029)
	2분위	-0.018 (0.032)	-	-0.003 (0.032)	-0.026 (0.033)	-0.008 (0.032)	-0.044 (0.027)
	3분위	-0.011 (0.028)	-	0.002 (0.029)	-0.012 (0.029)	-0.004 (0.028)	-0.019 (0.025)
	로그	-	-	-	-	-	-
부채	1분위	-0.005 (0.031)	-	0.002 (0.031)	-0.014 (0.032)	0.007 (0.032)	-
	2분위	0.025 (0.031)	-	0.023 (0.031)	0.013 (0.031)	0.035 (0.031)	-
	3분위	0.013 (0.029)	-	0.016 (0.029)	0.011 (0.029)	0.018 (0.029)	-
	로그	-	-	-	-	-	-
순자산	1분위	-	-0.081** (0.028)	-	-	-	-
	2분위	-	-0.042 (0.026)	-	-	-	-
	3분위	-	-0.018 (0.025)	-	-	-	-
부모소득	1분위	-	-	-	-	-0.065 (0.037)	-
	2분위	-	-	-	-	-0.050 (0.031)	-
	3분위	-	-	-	-	-0.014 (0.026)	-
대학 수학능력 시험	최상위	0.199*** (0.052)	0.205*** (0.052)	-	-	0.202*** (0.052)	0.206*** (0.052)
	차상위	0.061 (0.048)	0.065 (0.048)	-	-	0.058 (0.048)	0.065 (0.047)
여성		-0.067* (0.034)	-0.065 (0.035)	-0.068 (0.035)	-0.032 (0.023)	-0.068 (0.035)	-0.066 (0.035)
대출		0.067* (0.034)	0.073* (0.034)	0.072* (0.034)	-	0.069* (0.034)	0.070* (0.034)
여성-대출		0.035 (0.046)	0.030 (0.046)	0.028 (0.046)	-	0.031 (0.046)	0.031 (0.046)
석사 이상		0.241*** (0.056)	0.243*** (0.057)	0.260*** (0.056)	-	0.236*** (0.056)	0.242*** (0.057)
여성-석사 이상		-0.016 (0.089)	-0.016 (0.090)	-0.009 (0.089)	-	-0.005 (0.088)	-0.017 (0.090)
관측치수		1,202	1,202	1,202	1,202	1,202	1,202
R-square		0.457	0.449	0.456	0.427	0.460	0.451

주: 1) ()내는 이분산을 고려한 표준오차 2) 모든 회귀식은 코호트 더미, 연령 더미 거주지역 더미(서울, 경기도, 광역도시), 자영업자 여부 더미, 비정규직 더미, 시간제 일자리 더미 및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3) *는 통계적으로 5%에서, **는 1%에서, ***는 0.1%에서 유의함

<표 11> 근로소득(로그)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y	3y	5y
금융자산	1분위	-0.072** (0.024)	-0.102** (0.036)	-0.108** (0.040)
	2분위	-0.023 (0.020)	-0.052 (0.030)	-0.069 (0.036)
	3분위	-0.034 (0.019)	-0.039 (0.028)	-0.033 (0.031)
부동산자산	1분위	-0.033 (0.026)	-0.027 (0.039)	-0.037 (0.047)
	2분위	0.008 (0.024)	0.032 (0.034)	0.019 (0.039)
	3분위	-0.024 (0.021)	0.031 (0.032)	-0.048 (0.033)
부채	1분위	-0.011 (0.023)	-0.0205 (0.035)	-0.0417 (0.043)
	2분위	-0.006 (0.022)	0.001 (0.032)	-0.010 (0.038)
	3분위	0.002 (0.021)	0.024 (0.029)	-0.033 (0.037)
첫 일자리 로그 근로소득		0.485*** (0.029)	0.366*** (0.033)	0.368*** (0.038)
대학 수학능력 시험	최상위권 차상위권	0.131*** (0.036)	0.044 (0.060)	0.088 (0.053)
비정규직		0.006 (0.036)	0.030 (0.040)	0.083 (0.059)
여성		-0.116*** (0.019)	-0.134*** (0.026)	-0.195*** (0.045)
대졸		-0.092*** (0.023)	-0.153*** (0.031)	-0.230*** (0.038)
여성-대졸		0.048* (0.023)	0.075* (0.030)	0.046 (0.038)
석사 이상		0.041 (0.029)	0.016 (0.040)	0.097 (0.050)
여성-석사 이상		0.121** (0.042)	0.160** (0.050)	0.164** (0.052)
		-0.058 (0.067)	-0.069 (0.110)	0.039 (0.092)
관측치수		1202	936	676
R-square		0.628	0.475	0.456

주: 1) ()내는 이분산을 고려한 표준오차 2) 모든 회귀식은 코호트 더미, 거주지역 더미(서울, 경기도, 광역도시), 자영업자 여부 더미, 시간제 일자리 더미, 연도 더미 및 첫 일자리에서의 로그 소득수준 변수를 통제하였음
3) *는 통계적으로 5%에서, **는 1%에서, ***는 0.1%에서 유의함

<부록>

부모 자산보유-자녀 최종학력: <표 A1>은 부모의 자산 형태별 보유 규모와 자녀의 최종학력 수준간 결합분포이며 자산의 형태별로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처 자녀가 4년제 이상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부모가 더 높은 경제력을 보유할수록 자녀의 교육 혹은 인적자본 축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의 보유 정도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즉, 더 높은 분위의 부동산자산 그룹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이들이 4년제 이상 대학의 학위를 받는 비중이 단조(monotone)증가해 부동산자산 보유액이 4분위인 경우 1분위에 비해 4년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약 20.0%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 4분위보다 3분위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0.9%p 더 높은 비율로 4년제 이상 대학의 학위를 받았다. 즉, 고등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결정에 있어 부모의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녀의 대학원 이상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더 높은 금융자산 보유 분위에 해당할수록 이들의 자녀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부동산자산의 경우 3분위 및 4분위에 속한 부모의 자녀들이 더 낮은 비율로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A1> 부모가구의 자산분위별 자녀의 최종학력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전문대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전문대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대학원 이상	
1분위	35.7%	64.3%	54.7%	9.6%	37.7%	62.3%	57.7%	4.6%
2분위	30.8%	69.2%	55.1%	14.1%	27.4%	72.6%	60.5%	12.1%
3분위	29.8%	70.2%	61.6%	8.6%	20.1%	79.9%	68.9%	11.0%
4분위	15.7%	84.3%	76.9%	7.5%	21.0%	79.0%	65.3%	13.6%

부모-자녀간 학업성과: <표 A2>는 부모의 자산 형태에 따른 보유 규모별 자녀의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간 전이행렬을 나타낸다.

<표 A2>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자녀의 최종학력 및 대입시험 점수간 전이행렬

부모 최종학력	전문대	자녀최종학력 및 대입시험 점수			
		4년제 이상	4년제	대학원 이상	
				최상위권 시험점수	
고졸 이하	40.6%	59.4%	52.6%	6.8%	4.2%
전문대	25.6%	74.4%	66.7%	7.8%	4.4%
4년제 이상	21.0%	79.0%	70.0%	9.1%	7.1%

